

2020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수기집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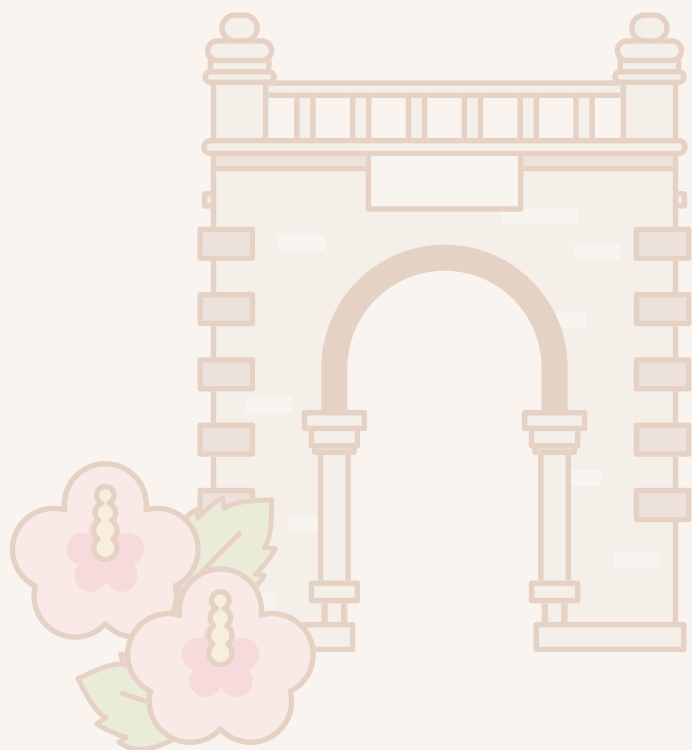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권덕동)
T 02-725-2257 F 070-4133-2258 www.hissf.or.kr

SEIOUL
U

2020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수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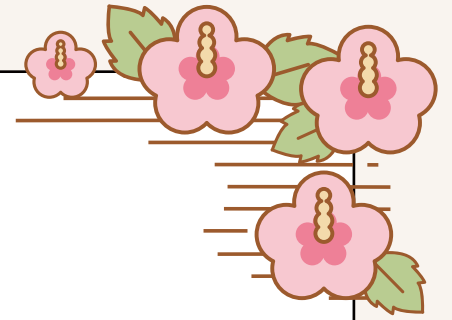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fighters
a collection of scholarship note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서울장학재단은
미래의 서울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그리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는 글



작년인 2019년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100년째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만을 바라며 오직 헌신과 희생으로 투쟁해 온 독립유공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서울장학재단과 서울시가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참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장학재단과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사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100명의 후손이 최종 선발되어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된 장학금은 학업 장려금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기집은 그렇게 선발된 100명의 후손의 기록입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장학생의 기록을 다 실지는 못했지만 먼 옛날 선조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오늘의 후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조와 국가를 사랑하고 기리는지 잠시 엿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학생들의 선조들은 누구나 이름을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대부분 소리 없이 헌신한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역사책에 실린 지도자뿐 아니라, 역사책에 한 줄 쓰이지 않은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 수기집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이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소개합니다

18 시민의 영웅, 독립투사

역사에 기록된 업적

- 21 이하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백정기 지사와 형제 백진수 지사
- 24 민경호 화승총으로 일본군 200명을 수장시킨 민용호 의병장
- 25 권순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김봉희 지사의 3.1운동
- 26 김수경 일제 치하 순사보로 재직했으나 지난 날을 반성하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은희송 지사
- 27 김휘린 청년 때는 학생운동, 의사가 돼서는 한센병 의료봉사, 6·25전쟁에는 군의관
- 28 마유선 홀연히 사라진 나의 선조 마진
- 29 민경숙 명성황후의 친족이자 최고의 권문세가인 민영환, 자결로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다
- 32 원옥임 가랑잎 속에 몸을 숨겨 위기를 피한 김태원 의병장
- 33 황하정 체포되자 사람들이 격을 고통을 생각해 혀를 깨물고 자결한 하상태 의병장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추억

- 35 노○○ 독립유공자가 아닌, 가족이 기억하는 한 사람의 노병상 지사

- 36 박규리 추운 겨울 산을 이틀 동안 걸어갔을 정도로 딸을 사랑한 할아버지
- 38 원서영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선조
- 40 최혜민 웅이 굶는 공장장, 하루도 빠짐없이 술 마시는 주당, 절름발이
- 41 이○○ 증조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산을 탕진한 신출귀몰한 한량인 줄 알았다

후손들의 기억

- 43 경수연 할머니의 허름한 시골집 빛바랜 대문 앞 명패
- 45 김재원 나의 영웅은 단지 두 줄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다
- 46 이○○ 할아버지의 속삭임
“거의 다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 47 이가영 빛나는 당신께 - 증조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 48 김민준 소리 없는 운동가, 윤창하
- 50 유 민 선조가 강도로 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 52 임광섭 공산주의자 누명으로 60년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53 임서연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소리

58 후손의 기록, 장학생 수기

장학금을 통한 삶의 변화

- 59 김현빈 포기하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 61 하 나 나라의 비현실적인 지원제도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 장학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63 김○○ 성적, 근로장학금보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이 자랑스럽습니다
- 65 안예슬 장학금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실력이 장비빨인것 같아서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 66 김민지 장학금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내 관심 분야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68 박기득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 70 김경민 갓 20살이 된 제가 세상을 꿈꾸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72 박○○ 장학금을 나의 발전을 위해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 74 유○○ 독립유공자 후손 세대공감, 줄여서 독후감 프로젝트
- 75 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받고 원하던 기업에 취업했어요
- 76 한수빈 장학금을 통해 실력을 키워 중국 정부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작되는 나눔

- 79 김○○ 결식아동을 돕는 ‘사랑의 도시락 선물하기’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 81 엄기재 장학금의 일부를 코로나19 기부금으로 사용했어요
- 82 박지윤 장학금은 선조들의 선하고 정의로운 돈이다
- 84 윤희경 나만 보던 삶에서 너를 볼 수 있는 삶이 되다
- 86 이○○ 이 장학금을 통해 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 88 이○○ 삼성의료원 등 병원에 연주봉사를 다녔었습니다
- 89 장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랫동안 내가 그대의 자랑이 되길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소개합니다

01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소개

장학금 소개
장학금 대상
장학금 선발 기준
선발 절차와 증빙 방법

장학생들의 삶, 옛보다

어떤 학생들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까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선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소개합니다!

Q1. 장학사업을 한눈에 요약해 주세요!

- **신청자격**
 - 독립유공자의 4대(증손자녀)~6대(내손자녀) 후손인 학생
 - 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거나,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로 비서울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 ▶ 비대상(20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생, 초과 학기생
- **사업규모: 300,000,000원**
 - 지원 인원: 100명
 - 장학금(1인): 연간 3,000,000원(학업 장려금/150만 원 × 2회 지급)
- **심사기준**

적격 심사 진행 후 예산 범위 내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우선선발 동일 순위, 동일 소득 구간 경쟁심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선발

학년 구분	심사항목	비고
1학년	자기소개서 정성평가(100)	
2학년 ~ 4학년	전 학년 성적 백분위 정량평가(100)	
- **모집기간 : 4월~5월 중**

Q2.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작년인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에서는 독립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예우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우를 그 후손들에게나마 돌려주고자 2020년인 올해 처음으로 3억 원을 독립유공자의 4대~6대 후손 100명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독립유공자의 4대 이하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입니다.

Q3.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의 대상은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4대 이하 후손 (4대~6대)

독립유공자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순국선열), 또는 항거한 사실이 있는자(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이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국가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복 이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학교에 다니기엔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장학재단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증손 자녀(4대) 이하 후손들을 장학금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대 (독립유공자)	2대 (자녀)	3대 (손자녀)	4대 (증손자녀)	5대 (현손자녀)	6대 (내손자녀)
국가의 지원범위			사각지대 발생		



1대 (독립유공자)	2대 (자녀)	3대 (손자녀)	4대 (증손자녀)	5대 (현손자녀)	6대 (내손자녀)
국가의 지원범위			서울장학재단의 지원범위(사각지대 해소)		

Q4.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선발 기준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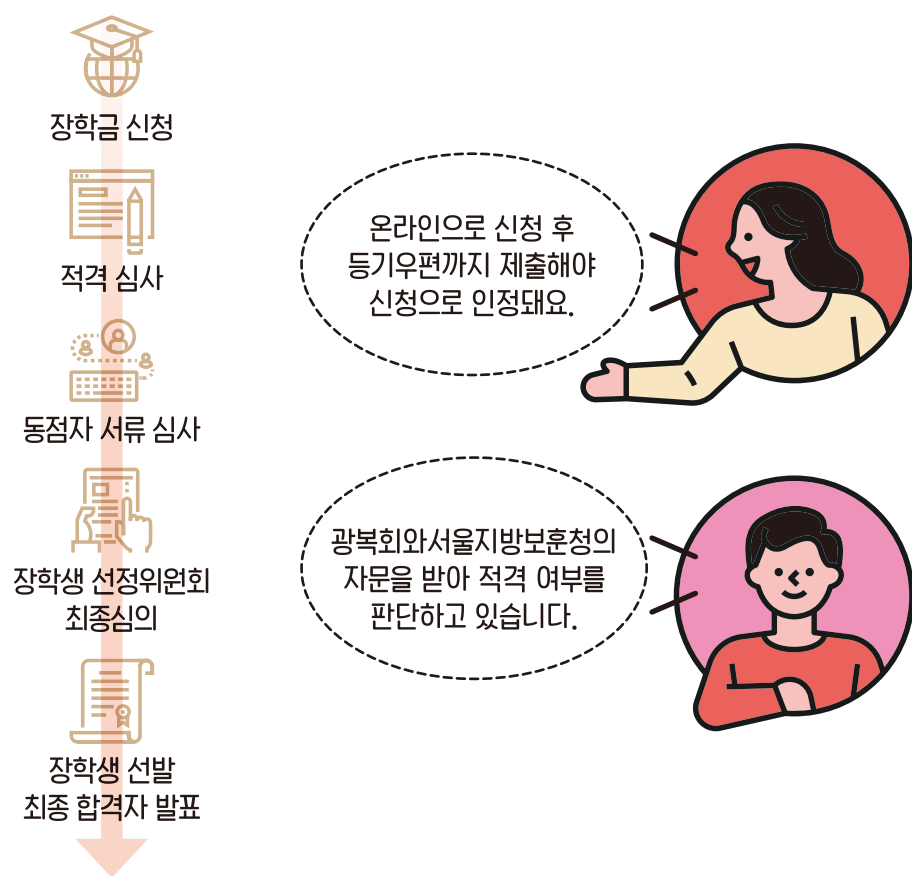
• 심사기준

- 적격 심사 진행 후 예산 범위 내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우선선발
- 동일 순위, 동일 소득 구간 경쟁심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선발

학년구분	심사항목	비고
1학년	자기소개서 정성평가(100)	
2~4학년	전 학년 성적 백분위 정량평가(100)	

Q5. 선발 절차와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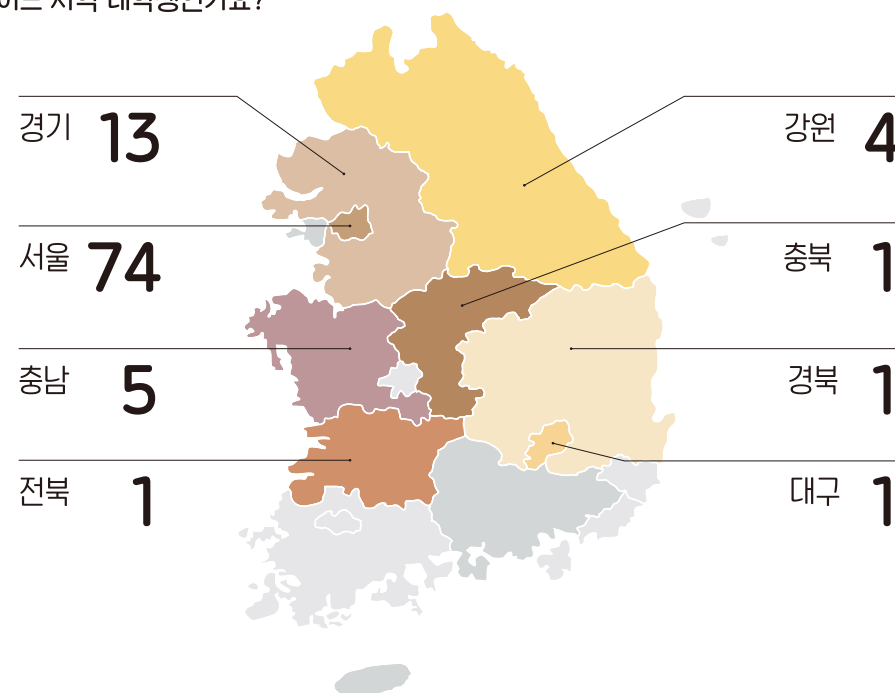
선발 절차와 증빙 방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2020년)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장학생들의 삶, 옛보다

어떤 학생들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까요?

장학생들은 어느 지역 대학생인가요?



장학생들은 어느 계통의 독립유공자 선조의 후손인가요?



장학생들은 독립유공자의 몇 대 후손에 해당하나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선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선조에 대해 잘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고 있었음	37
보통	22
잘 알고 있었음	47

가족 또는 집안에서 독립유공자 선조에 대한 언급과 이야기가 많았나요?

거의 이야기 하지 않음	19
보통	24
자주 이야기 함	53

4대 이하의 비교적 먼 후손이다 보니 집안에서 선조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있는 편이긴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통해 선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나요?

1~3년	5
4~10년	4
10년 이상	27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적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증빙을 찾기도 어렵고 오랜 심사 끝에 어렵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조의 독립활동으로 본인의 현재 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상황은 별개다	7
약간 영향이 있다	14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이 있다	75

많은 장학생께서 선조의 독립활동이 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조의 활동과 자신의 상황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및 예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하다	9
보통	29
충분하다	58

대체로 많은 장학생께서 서울시의 지원 및 예우에 대해 대체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이나 4대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여러 정책을 알려주는 등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시민의 영웅, 독립투사

02



역사에 기록된 업적

- 21 이하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백정기 지사와 형제 백진수 지사
- 24 민경호 화승총으로 일본군 200명을 수장시킨 민용호 의병장
- 25 권순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김봉희 지사의 3.1운동
- 26 김수경 일제 치하 순사보로 재직했으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은희송 지사
- 27 김희린 청년때는 학생운동, 의사가 돼서는 한센병 의료봉사, 6.25전쟁에는 군의관
- 28 마유선 홀연히 사라진 나의 선조 마진
- 29 민경숙 명성황후의 친족이자 최고의 권문세가인 민영환, 자결로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다
- 32 원옥임 가랑잎 속에 몸을 숨겨 위기를 피한 김태원 의병장
- 33 황하정 체포되자 사람들이 격을 고통을 생각해 허를 깨물고 자결한 하상태 의병장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추억

- 35 노○○ 독립유공자가 아닌, 가족이 기억하는 한 사람의 노병상 지사
- 36 박규리 추운 겨울 산을 이틀 동안 걸어갔을 정도로 딸을 사랑한 할아버지
- 38 원서영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선조
- 40 최혜민 옹이 굶는 공장장, 하루도 빠짐없이 술마시는 주당, 절름발이
- 41 이○○ 증조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산을 탕진한 신출귀몰한 한량인 줄 알았다

후손들의 기억

- 43 경수연 할머니의 허름한 시골집 빛바랜 대문 앞 명패
- 45 김재원 나의 영웅은 단지 두 줄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다
- 46 이○○ 할아버지의 속삭임 “거의 다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 47 이가영 빛나는 당신께 - 증조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 48 김민준 소리없는 운동가, 윤창하
- 50 유 민 선조가 강도로 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 52 임광섭 공산주의자 누명으로 60년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53 임서연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소리

역사에 기록된 업적



“본인의 독립유공자 선조는 어떤 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장학생들 선조의 활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백진수 지사의 4대 후손 이하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백정기 지사와 형제 백진수 지사

저의 독립유공자 선조는 백정기(외종증조부), 백진수(외증조부) 형제입니다. 두 분은 전라북도 정읍군 영원면 은선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적 부친을 여의었으나 성격이 활발하고, 성품이 곧으며, 의리가 있고, 글 읽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외종증조부께서는 학구열이 높으셔서, 14세 전후에 사서삼경을 통달하시고, 서도(書道)에도 천재적 소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신학문을 공부해 정치에 대한 식견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두 분 모두 벼풀기를 좋아하셨다고 외조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백정기 지사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외종증조부께서는 깊은 구국일념을 바탕으로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에 신명(身命)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서울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9년 고종께서 일제에 의해 서거하셨다는 소식과 3·1 독립만세운동의 기운이 무르익음에 따라, 고향에 돌아가 동지들과 합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급히 귀향하여, 3개의 마을에 일제의 침략 사실을 알리며 독립만세운동을 선도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동지 4명과 함께 다시 상경하여,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일제기관의 파괴와 침략 원흉들의 처단, 일제의 보급로 차단 등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로 망명할 것을 결심해 당시 항일활동의 주요 활동무대로 각광받고 있던 안동(현 단동)에 자리 잡아 독립운동가 이강훈님과 인연을 맺으셨고, 이후 북경으로 이동해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회영, 유자명, 이을규, 정화암, 신채호 등 여러 독립 운동가님들과 함께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연맹을 결성하여, 기관지로서 <정의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1927년에는 한·중·일의 3개국 동지들과의 합작으로 농촌 자치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에 따라 복건성 천주시에 민단훈련소가 설립되고, 이곳에서 항일독립투사를 양성하셨습니다. 외종증조부께서는 이 때 농민자위군을 조직하여 농촌 계몽과 조직화에 힘썼고, 이후 3500명 규모의 대오를 정비해 농민 자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28년에는 일본상품배격운동을 지도하였고, 남경에서 열린 '동방무정부주의자대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한·중이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일제를 섬멸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동맹의 기관지인 <동방>의 편찬위원 중 한 명으로 활약하였으나, 과로로 인해 병을 얻어 반년 동안 정양(靜養)하다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1930년 상해에서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창립하여, 일본 침략세력의 저지작전과 밀정 섬멸작전을 임무로 하여, 중일 전쟁 때 두 개의 전지공작대를 조직해 학도병 귀순공작과 포로구출작전을 펼치고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1931년 민주사변 당시에는 항일구국연맹을 조직하고, 그 기관지로서 <자유신문>을 발행하여 서사 항일투쟁을 선전하였고, 동지 15인들과 일제기관의 파괴와 침략원흉의 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흑색공포단'이라는 행동대를 조직하셨습니다. 이후 일본 영사관의 밀정으로 지탄받고 있던 이종흥, 변절자 옥관빈, 친일파 이용로를 처단했습니다. 이때 외종증조부께서는 외종증조부께서 독립운동에 사용할 군자금 조달을 위하여, 인쇄공들과 함께 위폐를 인쇄하여 전달해 국외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33년, 일제가 주중공사 유길명을 거액으로 매수해 '반만항일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군과 한국의 항일독립군을 공격하고 탄압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비밀회의가 상해의 고급 식당에서 개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외종증조부와 이강훈의사가 함께 폭탄 2발, 권총 2자루, 탄환 20발, 수류탄 1개를 준비하여 유길명 등을 처단하기로 하셨습니다. 거사일, 두 의사는 "죽어 저승에서 만나자"라는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철옹성같은 감시로 둘러싸인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 자세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나기로 계획했던 일본인이 계획을 누설하여 일제에 붙잡히게 됩니다(육삼정 사건).

비록 거사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해당 사건은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음모를 폭로해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인의 항일의식 고취에도 큰 영향을 주었

기에 독립운동사상의 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때 외종증조부를 비롯한 가족들은 외종증조부의 여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읍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0개월 만에 석방되었고, 외종증조부께서는 이때 일본 나가사키로 압송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옥고에 시달리던 중 향년 39세로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옥중순국 소식을 들은 외종증조부께서는 형의 시신을 찾아 안장하고 귀국한 후 실의의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1936년 위폐인쇄 당시의 동지가 위폐를 사용하려다 발각되어 외종증조부께서는 일경에 피체되었고,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이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외종증조부의 유해는 조국 광복 후 1년 만인 1947년 7월 6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유해와 함께 봉환되어, 효창원에 안장되었고 정부에서는 두 분의 공훈을 기리어 외종증조부께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외종증조부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셨습니다.

제 선조들께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신념에 영향을 받아, 저 또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구열이 뛰어나셨던 선조들처럼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익혀 식견을 넓히고, 그렇게 쌓은 지식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민용호 지사의 6대 후손 민경호

화승총으로 일본군 200명을 수장시킨 민용호 의병장

저에게 고 고조 할아버지이신 독립운동가 복재 민용호 의병대장은 12세 때 성균관생도로 들어가 20세에 전시에 응시할 자격시험에 장원을 하였으나, 집안 형편상 그만두었습니다. 을미사변 후 의병을 일으켜 관동 창의 대장으로 추대되어 강원도 항쟁에서 일제의 신식무기와 맞서 심지에 불을 붙이고 발사를 기다리는 화승총으로 일병 수백 명과 일본해군이 강릉으로 상륙할 때 신총통을 제작해 200여 명을 수장시킨 공적이 있습니다. 항전에 항전을 거듭하다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고종의 부름을 받고, 독립협회의 활동을 저지하는 황국협회에 가담하여 만민공동회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중추원의관과 위원군수를 지내고 정3품 통정대부 비서원승을 지내다 국운이 기울자 관직을 과감히 은퇴하여 은거하였습니다. 문인이자 무인이신 할아버지는 '복재집'과 함경도와 경북일대의 활동일지와 서한을 기록한 2권의 '관동창의록'을 남겼는데, 2018년 8월 6일 '국가등록 문화재 제 722호'로 지정, 현재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1977년에 비로소 건국훈장을 받았습니

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도 형제간의 우애와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심, 그리고 명심보감을 몸으로 읽고 지행합일을 실천하신 할아버지께 깊이 감명받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 싸우셨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효에 대한 마음이 깊으신 생애를 접하고, 할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게 할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버금가는 손자로 제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며 잘 알려지지 않은 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알아가고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김봉희 지사의 4대 후손 권순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김봉희 지사의 3.1운동

저의 독립유공자 선조는 김봉희 독립운동가이십니다. 1919년 3월 31일 평택에서 같은 동리에 사는 박성백·최구홍·유동환·전영호·유만수 독립운동가와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4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미리 만들어 두었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며 북면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행진한 뒤 일경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각목으로 많이 맞으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기획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덕분에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듣기만 했던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고, 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사 시간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바로 총 대신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한 3.1운동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성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시민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일 합병조약으로 무너진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선조들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독립을 하였고,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를 마음 깊숙이 넣어 절대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저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가 한국사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지 못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를 통해 국권을 잃는 대위기가 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반도체 시장에 대위기가 와도 증조할아버지의 마음가짐으로 이겨내겠습니다.

- 은희송 지사의 4대 후손 김수경

일제 치하 순사보로 재직했으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은희송 지사

저희 증조할아버지이신 은희송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끝난 직후 부안군의 천도교인들과 정음군의 천도교인들은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부안군의 청년이었던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이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순사보로 재직 중이셨는데 순사보직을 물러섬과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독립운동에 전념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후 부안군 등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동지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에게 만세운동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또한 1931년 6월, 전북노동조합장 장례식에 모인 군중들을 모아 만세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 2년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이실 무렵, 1975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기재된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색해 보니 동아일보 1927년 6월 29일자에 기재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동네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아끼던 가난한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 과수원의 과일을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 과수원 주인은 소녀의 허벅지 살을 가위로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고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이에 크게 격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연이 신문에 기재되었고 저희 엄마가 신문을 보시다 발견하셔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 사연을 스크랩하여 보관하셨습니다. 이렇듯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에 앞장서셨고 동네의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신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증조할아버지의 기운을 받아 앞으로 부조리한 일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여러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조할아버지처럼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박계수 지사의 4대 후손 김휘린

청년때는 학생운동, 의사가 되서는 한센병 의료봉사, 6.25전쟁에는 군의관

제 독립유공자 선조는 저의 외증조할아버지입니다. 1914년 4월 21일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에 있는 평범한 농가의 7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1929년 전남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일제에 대항한 동맹휴학에 참여하셨다가 퇴학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평양에 있는 의사양성소를 졸업하시고 결혼을 하셨지만 의사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셨습니다. 28세에 의사 임명을 받으시고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자원하시며 전남 고흥의 소록도 병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6.25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 가셔서 군의관으로 7년간 복무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 여러 곳을 돌며 병원을 개업하기도 하셨지만 영광, 평택, 횡성 등의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종사하시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요를 위해 힘쓰셨습니다. 횡성에서 근무를 하시다 고령으로 은퇴하시고 1994년 1월 23일 편안하게 별세하셨습니다.

이 수기를 작성하기 위해 외할머니께 외증조할아버지의 생애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광주 학생운동에 제 할아버지께서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멀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일제의 탄압에 침묵하지 않고 대항하신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낸 할아버지를 보면서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소비하는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학당하신 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의사가 되시고, 농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 것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닦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뵈지 않았지만 이번 장학 제도를 통해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작년에서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셔서 조금 아쉽지만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증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진 지사의 5대 후손 마유선

홀연히 사라진 나의 선조, 마진

독립유공자 선조 마진님께서 창동학교 교장으로 교육을 통하여 애국지사를 양성하고자 하였으며 교직원 120명으로 구성된 항일투쟁 결사대인 충열대를 조직, 1919년 용정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식 및 만세시위를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대한국민회를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군자금 모집과 일본밀정 주살을 위한 폭탄 제조를 계획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통일체로서 대한독립기성 총회를 조직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결사대를 조직하고 천보산 광업용 폭발물을 입수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 파견되어 활동하기도 하였고 명동학교 졸업생 및 학생을 중심으로 정행단을 조직하여 무장활동을 시도하였고 국민회 지회 설치계획을 세워 국민회 남부지방총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간민회 분회장으로서 항일운동을 하였으며 총합부를 설립하고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 노령암살대를 조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항일투쟁 운동 때문에 일군의 표적이 되어 일군토벌대에 의해 집이 소각 당했으며 피신 후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진 지사

친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의 업적이 기억되기를 원하셔서 업적을 조사, 연구하여 나라에 알렸으며 그분들의 공로에 관한 '간도사 신문'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또한 친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와 항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일에 관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화가 나서 마주하는 것을 회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조께서는 일군의 표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매일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날에 선조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선조들의 노력이 잊히지 않도록 친할아버지가 하셨듯이 저도 후손들에게 자주 이야기 해줄 것이고 어렵게 이뤄낸 나라를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길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 민영환 지사의 5대 후손 민경숙

명성황후의 친족이자 당대 최고의 권문세가인 민영환, 자결로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다

생애

민영환 선생은 1861년 7월 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태어났다. 1877년 학동들을 가르치는 동몽교관이 되었으며, 이듬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881년 성균관대사성에 발탁되었다.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라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환 지사

업적

1887년 예조판서를 시작으로 병조판서, 형조판서를 지내며 1895년 8월에는 '주미전권대사'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을미사변이 일어남으로써 선생은 이를 막지 못했던 자괴감, 그리고 일제의 침략에 대한 분노를 하며 주미전권대사를 끝내 부임하지 못하고 사직하게 된다.

1896년 4월,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5월 26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석을 위해 인천발 러시아 군함을 타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약 3개월동안 러시아에 머물며 선진 문물과 제도 등을 견문하고 또 경험한 선생은 귀국한 뒤, 서구의 근대식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 군사 제도 등을 개혁할 것을 추진하였다. 근대식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군제를 개편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고 건의를 했다.

모든 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다만 군제 개편 건의만 채택되어 육군을 통솔하는 최고 기구로서 원수부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898년부터는 조국근대화 의지가 더욱 강해지며 독립협회가 본격적인 자주민권

운동을 전개하자,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회를 개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10월 초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수구파 대신의 퇴진과 개혁파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상소와 철야 시위를 연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즉각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안을 받아들여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설하기로 결정,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는 의회설립법을 공포하였다.

한편, 일제는 1904년 2월 8일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도발, 2월 23일에는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하며 본격적인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등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서로 공인받게 되는데, 일제가 이 같은 침략정책을 실행하자, 선생은 내부, 외부, 학부, 참정대신 등을 역임하며 격렬히 저항한다.

설상가상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의 관료들을 총칼로 협박하여 1905년 11월 7일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게 됨으로써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게 되는데, 선생은 이 소식을 듣자 비분강개하여 원임 의정대신인 조병세와 함께 을사조약을 파기하도록 상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위협 속에 있던 광무황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재차 상소를 올리고 대한문 밖에서 엎드린 채 대답을 기다렸고, 조약 체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점점 고조되어 가는 듯 했으나, 일제는 이 여론을 의식한 듯 일본 헌병들을 출동시켜 선생과 조병세를 잡아 가두어 버렸다.

평리원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11월 29일에 선생은 석방되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바로잡을 길이 없음을 개탄하였다. 남은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들을 깨우쳐 나라와 민족이 자유 독립을 회복하는 데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 한 선생은, 결국 11월 30일 오전 6시경, 45세의 나이로 2천만 동포와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남기고 품고 있던 단도로 목을 찢러 자결하여 순국하게 된다.

나의 생각

선조의 역사는 어릴 때부터 어렵듯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이번 수기 과제를 통해서이다. 민영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기릴만 한 인물인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제국을 파국으로 이끈 집단 중 하나인 민씨 세력, 민씨 집안 사람이기에, 또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자결 = 회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 또한 '책임 있는 자리를 거친 인물로서 꼭 자결을 하지 않고도 다른 적극적인 방식으로 뜻을 펼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이유에는, 자결 또한 '책임의식' 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친일파, 서양세력에 기댄 이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사회의 지도자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자결했다는 것, 선생이 갖고 있었던 많은 한계의 현실에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나의 선조이지만, 역사의 주요 인물로 기릴 필요성의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친일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깨끗이 청산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 왜 아직도 그러한 현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다.

- 김태원 지사의 4대 후손 원옥임

가랑잎 속에 몸을 숨겨 위기를 피한 김태원 의병장

독립운동가 김태원 (1863년 출생 ~ 1933년 사망) 손자인 김연옥 어머니께서 늘 말씀 하셨습니다.

선조께서는 강원도 영월에서 출생하셔서 영월 주천, 충북 제천, 경기 이천 등에서 2000여 명의 병력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을 사수하고 서울진공작전으로 경복으로 남하하던 중 유인 석의 지휘하의 서상열 부대에 합류하여 활동하셨다고 한다. 의병활동 중 가지고 나가 썩었던건 버선과 짚신 몇 켤레가 전부였으며, 또 식량으로는 인절미를 벽에 붙여놨다가 가지고 나가셨다고 한다.

늘 집은 일본군들이 감시를 하였고, 김태원 의병장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식구들을 괴롭히 면서 먹을 것을 해달라며 총으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의병활동 중 집으로 생필품을 가지러 오던 중 일본군들을 보고 도망치다 가랑잎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일본군들이 몸을 밟고 지나갔다고 한다.

동지인 친 중조부이신 원용팔 의병장과 의병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돈하자 하시어, 손녀 인 김연옥 어머니와 원용팔 손자인 저희 아버지가 혼인을 하셨다고 한다. 김태원 의병 장께서는 형무소에서 단식과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셨고, 또 원용팔 의병장도 원주에서 체포돼 경성교도소에서 고문으로 옥사하셨다. 후세에 자손들은 김태원 의병장의 영정과 유품 약 13점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여 그분들의 높은 뜻을 후세에 알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니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분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다.

- 하상태 지사의 5대 후손 황하정

일본군에 체포되자 마을 사람들이 격을 고통을 생각해 혀를 깨물고 자결한 하상태 의병장

독립운동가 하상태 의병장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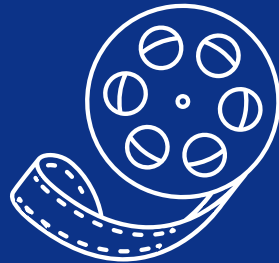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하상태 의병장의 생애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이후 육군으로 친위대와 지방 군대 진위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진위대는 지방에 위치한 군대로 강화, 수원, 대구, 평양, 북청, 의주 중 강화에서 참교(현재의 하사에 해당)로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무위키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인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정미조약은 일본제국이 국방 및 병무에 관한 지휘권을 잡아 군대를 해 산하게 만든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의 불공정 조약입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군대가 해산한 다음 독립운동가 하상태 의병장은 '해동보국신민창 의대장으로' 경기도 장단에서 의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부대 부교(현재의 중사에 해당) 연기우 의병장 부대와 힘을 합쳐 임진강 고랑포, 강원도 철원, 평강 '임진북남예성정맥'에서 일본군과 투쟁을 했습니다. 또한, 동두천에서 일본군 병참소를 급습하여 연기우 의병장과 300명의 의병과 같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09년 숨을 거두실 때도 일본군의 추궁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격을 고통을 생각하셔서, 스스로 체포되었을 때 혀를 깨물고 자결하셨습니다.

저는 검색을 하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협동심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 자이신 저희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하상태 의병장께서는 일본군으로 인해 울분을 많이 토하셨다고 합니다. 큰 권력으로 인해 군대가 해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만이 아니라 다 같이 협동하면 이루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대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다독여주어서 힘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의병을 일으키셨지만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추억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은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들도 집에서는 다른 가족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칠 화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에게도
독립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 노병상 지사의 4대 후손 노○○

독립유공자가 아닌, 가족이 기억하는 한 사람의 노병상 지사

아쉽게도 선조님에 대한 기억은 있지 않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이기 때문도 있지만,
아버지가 원래 과거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아버지의 형제에
게 여쭙어보면 독립유공자가 아닌 한 사람의 노병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식의 암을 중요시 하셨기에 유독 책을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삼촌을 가장 예뻐하
셨다는 말이었다.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 간식도 많이 사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외로는 가족들 역시 큰 추억이 없는 듯 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 검색해 이야기를 찾아
보니, 나도 알지 못하는 증조할아버지의 태어난 년도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제작했고, 주민을 규합해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0개월, 짧은 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참으로 긴 시간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원통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다.

- 김만복 지사의 4대 후손 박규리

추운 겨울 산을 이틀 동안 걸어갔을 정도로 딸을 사랑한 할아버지

저의 독립유공자 선조의 존함은 김만복으로 1878년 5월 20일 충청북도 연풍의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신 선조분께서는 1907년 음력 9월 충북 연풍군에서 이중봉 의병장의 부하가 되어 연풍순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하였고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의병은 외적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한제국 시기의 의병은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선조분의 딸인 저의 할머니와 가족을 두고 의병활동을 하신 점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뒷순위에 두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조분께 감사하면서도 슬픈 마음이 공존합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선조분의 모습을 많이 말씀해주시지 않았 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 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게 된 선조분의 일화는 할머니께서 열다섯의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집안일을 하며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던 할머니께서는 매우 말라가셨고 선조분께 서는 자신의 딸을 보러왔다가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선조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우리 딸 살 좀 찌운 후에 다시 오겠다 하며 할머니와 함께 추운 겨울 산을 이틀 동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와 가족을 모두 사랑하셨으며 평생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사신 저의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립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선조분의 정신 을 본받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분께서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이갑수 지사의 5대 후손 원서영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선조

저의 고조할아버지이자 독립유공자이신 이갑수 할아버지께서는 구한 말인 1879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성인이 되셨을 때쯤 상경하시어 금빛 비단실을 뽑는 누에를 키우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자,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고 모아둔 막대한 자금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노름으로 눈속임을 하여 모아둔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넘기셨고 물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셨습니다.

이후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에 할아버지의 고향인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께서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시다, 일제의 무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감옥에서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몸이 크게 상하셨고, 곧 죽을 것이라고 판단한 일제는 할아버지를 석방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석방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조할아버지의 일생을 알기 전, 저에게는 독립운동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이 비범하고 자기희생적인 '몇몇 사람들만의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타 개설서를 통해 접하는 독립운동에 대한 거시적인 서술과 매스컴에 주로 소개되는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일화는 '저항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조할아버지의 삶은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일화보다 더 가깝고,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신념으로 재산을 전부 독립운동에 내어주셨을까?',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사회는 어떠한 세상이었을까?' 등 할아버지께서 처했던 상황과 고뇌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할아버지의 염원과 희망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저 자신과 연결하여, 본받아야 하는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께서 재산과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까닭은, 현실적인 안위보다 추구하는 '가치'를 더 우선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조할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조원경 지사의 5대 후손 최혜민

옹이 굶는 공장장, 하루도 빠짐없이 술마시는 주당, 절름발이

조원경 할아버지는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죽면 주민들을 비롯해 두현리의 주민 수백명이 이죽면 죽산리에 가서 죽산 경찰관 주재소와 이죽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조원경 할아버지는 체포되셔서 1919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문서 속 조원경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아는 조원경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죽산에서 옹이를 굶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고 다녀 곁에 가면 술 냄새가 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역 후에는 다리를 절고 다니셔서 동네 주민들에게 절름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셨다고 합니다. 독립자금을 대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다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독립운동가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까지 가져갈 비밀을 할아버지는 그 몸에 삼켜 가셨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른 희생과 아픔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창희 지사의 4대 후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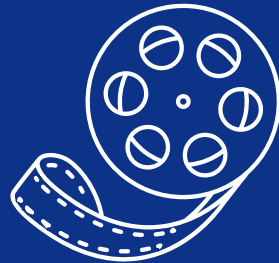
증조할아버지가 집안의 가산을 탕진한 신출귀몰한 한량인 줄 알았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들 모두 증조할아버지(이창희 李昌熙)께서 독립유공자이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집에 잘 계시지 않았고 말 없이 바깥에 훌쩍 나갔다 한참 지나서 돌아오시는 신출귀몰한 한량 같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대대로 고향인 전라남도에서 기와집과 소유한 땅들이 많았는데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으나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경기도로 상경해 힘들게 사셨다고 아빠에게 그런 집안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때문에 증조할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 모두 굉장히 놀라워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상경하신 이후로 아버지부터 저까지 경기도에 거주한 지 오래됐지만 원래 저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 때까지 전라남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전남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교원으로 일하셨으나 1931년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참여하시다 체포를 당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32년에는 직접 공장에 들어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하고 여수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하셨다고 합니다. 36년에 치안유지법으로 징역을 선고 받으셨던 증조할아버지는 이후 2006년 공훈을 기려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고 하십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생애를 가족들도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보훈처에서 정리해준 내용을 보면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셨던 것 같아서, 그 흔적을 보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때문에 고생하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오해가 풀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가족들의 오해가 풀린 지 오래됐으니 모두들 자랑스럽고 뿌듯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증손주로서 증조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언제나 당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후손들의 기억



수기는 독립유공자 선조들에 대한
후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김경태 지사의 5대 후손 경수연

할머니의 허름한 시골집 빛바랜 대문 앞 명패

할머니의 허름한 시골집 빛바랜 대문 앞엔 언제나 반짝이는 '독립 유공자의 자손'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사를 가실 때마다 따라오는 이 명패를 보며 저희 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당신의 딸에게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독립투사의 피가 흐르는 자손이다.'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의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얘기하시던 아버지 덕에 어린 저도 대단한 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던 한국사 책엔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고조할아버지의 존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어렴풋이 느끼던 자부심 또한 금방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사는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조할아버지의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금세 잊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자 한국사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인 임용고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올라와 대학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만 집중했었던 저는 한국사 공부를 하며 잠시 잊고 있었던 고조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작년 4월의 어느 주말 할머니 댁에 가서 가족들에게 고조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하여 자세히 여쭙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 번도 궁금해 하지 않았었던 이야기였기에 당연히 가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었던 터라 가족들의 대답은 온통 처음 듣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께서 활동하셨던 단체가 한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단체라는 것 또한 그 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1917년 한 단체에 가입하셨고, 부호들로부터 자금을 각출(釀出)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고조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모아진 군자금을 만주의 독립군기지로 조달하여 혁명군을 양성하는 데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이 군자금은 국내에 혁명 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조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확보된 기지를 거점으로 삼고 독립을 위한 투쟁과 봉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틀어 혁명계획이라고 불렀고, 이것에는 군자금 조달, 독립군과 혁명군을 위한 기지 건설, 총독 및 친일파 처단 등이 속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러한 혁명계획에 따라 김한중(金漢鍾) · 장두환(張斗煥) · 임봉주(林鳳柱)와 함께 1918년 1월 악질 면장이자 친일 부호인 아산군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단체의 존재가 발각되었고, 할아버지께서 결국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1921년 8월 사형을 집행당하여 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께서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이 단체의 이름은 '대한광복회'이며, 할아버지의 존함은 '김경태(金敬泰)'입니다.

할아버지의 업적을 알고 나니 어렵듯이 느껴지던 아버지의 자부심은 저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조할아버지와 다른 독립투사들의 열망에 대하여 여태껏 관심을 갖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습니다. 더불어 한국사는 무언가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발판 삼아 더 깊은 역사 공부에 힘을 쓸 것을 다짐합니다.

- 김성현 지사의 4대 후손 김재원

나의 영웅은 단지 두 줄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다

'김성현(金聖炫)' 내 선조의 이름이다. 나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고, 아버지 쪽은 좀 더 아래 지역에 있다고 들었다. 나는 내 선조를 잘 알지 못한다. 어떤 분인지, 어떤 업적인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른다. 아니, 알려주지를 않았다.

"1920년 음력(陰) 2월부터 음력(陰) 4월 사이에 군자금모집을 강행하다가 피체, 1922년 2월 8일 광주(光州) 지법에서 10년 징역형의 언도를 받고 대구(大邱) 형무소에서 복역 중 특사로 2년 감형되어 8년형을 마친 사실이 확인됨"

공훈전자사료관에 이름을 검색하면 2줄로 설명이 된다. 어렸을 적, 현충원에서 느꼈던 위대함, 그 웅장함 속에 알 수 없게 기대하던 나의 영웅은 단지 2줄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였다. 선조분의 독립운동은 아무래도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의열단 단체의 행보라고 생각한다. 당시 독립 운동가들의 최후를 알고 있어서 초조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선조분을 잘 알지 못하여 부모님께 여쭙어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하지만 나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으셨다. 아버님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이 들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아무래도 정서적인 교류가 많이 부족한가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셨다. "우리 두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가 두고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 전 내 나이 25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미웠다. 독립유공자 선조분의 후손일 경우 그 집안이 온전치 못하고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가족들의 행복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고 어느 한쪽 잘못이라고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저 양자택일의 선택 앞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선조가 매우 자랑스럽다. 하지만 내 가족도 매우 자랑스럽고 소중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주고 내 가치관을 뚜렷하게 해준 내 선조에게 감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준 독립유공자 단체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차주환 지사의 4대 후손 이○○

할아버지의 속삭임 “거의 다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1937.4월경, 동년 3.14에 춘천고등보통학교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상록회(常綠會)라는 비밀결사에 가입하여, 동회의 조직 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다가 피체되어 1939.12.27.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일제통치에 항거한 사실이 확인됨."

저희 외증조할아버지의 존함을 공훈록에 검색하면 나오는 업적입니다.

저는 이 세 줄 외에 외할머니로부터 할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희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일본군에 의해 인도네시아로 징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하게 되었고 며칠을 물길을 따라 걸다가 미군부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한국행 배를 타게 되었으나 일본군에 의해 배가 난파 되었고, 뗏목을 잡고 버티다가 다시 구조되었습니다. 후에 바로 한국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독립 후 1~2년 지난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항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으로 징병 되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기 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고 과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나 연습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였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 길을 포기해야 하나 수 번을 고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보였고 그럴 때 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셨던 할아버지의 얘기를 교훈삼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더 어려워지고 그만 두어야 하는지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할아버지가 찾아와 속삭여 주신 것 같습니다.

" 거의 다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 이재손 지사의 4대 후손 이가영

빛나는 당신께 - 증조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증조 할아버지, 저 증손녀 가영이에요.

처음 기쁜 마음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차분한 말씀으로 "너희 증조할아버지께 제일 먼저 감사드려라."라고 하셨어요. 증조할아버지께서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즈음에, 강원도 원주시 일대에 독립선언문을 집집마다 돌리며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셨지요.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할아버지의 그대 당시 나이를 계산해보니,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어린 자식 하나를 남겨두고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가 조금은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할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증조할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으셨대요. 오히려 고개를 더욱 뺏뺏이 들고 자랑스럽게 다니셨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패를 줬는데, 그것을 당신이 대표로 받으셨다며 구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한 손에는 커다란 감사패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계셨는데, 아이같이 해맑은 웃음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니더라도 후손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후손으로서 더 기억하고 알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10살의 소년이 그러했듯, 저도 고개를 뺏뺏이 들고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소리 없는 운동가, 윤창하

- 윤창하 지사의 4대 후손 김민준

저의 선조이신 윤창하는 1917년 10월 20일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요청에 의해 대한광복회에 참여했습니다. 1917년경부터 대한광복회는 민족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친일 부호 처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윤창하는 채기중·유창순·조용필·김한중 등과 뜻을 같이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정진화의 산지기 집에서 부호들에게 군자금 모집을 요청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윤창하 지사

이 모임에서 정세여가 원고를 기초하고 그가 자필로 16매 가량을 복사하였습니다. 김한중은 이를 상주와 함창 등지에서 투합하였습니다.

그는 이들과 함께 광복회 군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지의 부호들에게 발송하는 문건 등을 복사·투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18년 1월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태 90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만주로 망명한 뒤 1921년부터 1926년까지 중국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다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더 편한 삶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용기와 용맹함에 놀라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점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나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선조이신 윤창하는 그것을 해내셨고 심지어는 해외로 추방되어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점은 정말 닮고 싶습니다.

남들이 잘못된 답에 대해서 워선으로 인해서 모두가 옳다고 할 때 시비를 제대로 판단

하여 간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은 그 간언을 돕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회상이자 어른들이 내 비취야 하는 바른 모습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선조인 윤창하가 정확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얼마나 바른 사람 이었고 옳은 일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는지 압니다. 저는 그런 선조의 얼을 이어받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힘쓰고 싶습니다.

- 유환기 지사의 4대 후손 유민

선조가 강도로 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생이 될 기회를 주신 저의 독립운동가 선조는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성함은 유환기로, 전라북도 용담 일동 금곡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증조부께서는 전북 무주 및 금산군에서의 의병 항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1908년 전북 무주군 적상산성 전투에 의병으로 활동하시고 군자금을 모으는 등 자금 담당을 맡으셨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하시다가 체포되어 7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1923년에 48세의 연세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증조부께서 묘지 없이 땅에 묻히시자 이후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몰래 유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셔온 유해는 증조할머니 무덤 옆에 묻혀 증조할머니와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증조부의 유골을 모셔오던 때는 아버지가 유년기였는데도 당시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환기 증조부께서는 1910년에 재판의 받으셨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강도사건, 즉 절도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에 관한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증조부께서는 35세의 나이로 약재를 파는 장수였고, 강도로 징역 7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문태수 외 11명과 함께 3번에 걸친 강도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환기와 문태수 외 11명은 총 3정과 칼 1자루를 들고 타인들을 위협해서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쁜 자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보통 사람들을 위협했고 약탈하였다."

그런데 징역 7년이란 결과가 나오기엔 3번의 사건 모두 내용이 부실하였습니다. 분량이 작고 반복된 말이 많고 증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판결문의 신뢰감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증조부와 함께하신 문태수란 인물은 조선 말기의 의병장입니다.

문태수 의병장은 정미조약 체결과 한국군 강제 해산 사건으로 무주에서 의거하고 영남, 호남, 호서 일대에서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있다는 걸 참고하면 강도를 당한 3명의 사람은 친일파이거나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벌어진 의병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의 운동인데, 특히 전라도의 경우 항일 의병 활동이 많고 증조부께서 활동하신 1900년대 초 시기가 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과 다르게 전라도 항일 의병에 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조부께서 중요한 지역의 의병운동에 참여하셨음에도 판결문의 신뢰성 등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항일 의병운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발휘하신 애국심으로 인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사업인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무엇보다 삶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이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유환기 증조할아버지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 임종한 지사의 4대 후손 임광섭

공산주의자 누명으로 60년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증조부의 성함은 임종한이다. 1903년 10월 20일에 출생하였고, 일본에서 중학교를 나오셨다. 귀국 후에는 YMCA에서 영어를 배우셨다. 1922년, 20세의 젊은 나이에 항일운동을 시작하셨다. 조선 청년총동맹 전북연맹을 조직하고 간부로 활동하셨고, 농민조합조직, 소작농 등을 규합하여 전국적 조직을 형성을 계획하는 등 대중항쟁도 주도하셨다. 1928년 3월에 신간회(新幹會) 부안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고, 1928년 8월에 합법 농조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준비 중에 압송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다.



임종한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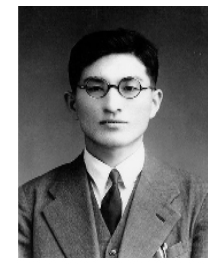
석방 후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이어갈 때 중일 전쟁이 터지고, 활동무대를 만주로 옮기려고 망명을 시도했으나 열차 검문에 걸려 체포된 뒤에 심한 고문을 당한다. 후에 귀가조치 되었으나 옥에서 얻은 병과 고문으로 1941년 39세의 나이로 병석에서 숨을 거두셨다. 증조부께서 숨을 거둘 당시 조부의 나이는 고작 8세였다. 그래서 생전에 증조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조부께서도 아는 바가 적었다. 증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공산주의와 연관되었다는 누명으로 인해 2005년까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은 돌아가신 조부께서 어떻게든 부친의 좌파 명예를 벗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셨다고 한다. 다행히 05년에 그 명예가 벗겨지고 국가에서는 사과의 의미로 무덤과 증조부의 업적을 비에 새겨주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으나 6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독립운동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조부께서도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부친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는 것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계셨다. 나 또한 그렇다. 누군가의 인정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주권을 되찾고 지금은 일본마저 견제할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자체가 독립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 간 선조들에게 최고의 상급이라 생각한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다. 지금 2030세대가 가장 받아야 할 정신이 이런 희생정신이라 생각한다. 국가의 위기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미래와 후대를 생각하는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한다.

- 강일구 지사의 4대 후손 임서연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소리

[선조의 생애와 업적]

저는 강일구 애국지사의 증손녀입니다. 애국지사셨던 저희 강일구 할아버지는 1930년대에 항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셨습니다. 1931년 비밀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공산주의연구협회(共產主義研究協議會)를 결성하고 교양부를 담당 하셨습니다.



강일구 지사

1933년 공산주의자협의회를 결성하고 평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같은해 칠모회(七毛會)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야학운영과 사회주의 사상 보급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습니다. 1935년 11월 25일에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받으셨으며, 1950년 7월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 분들을 대하는 나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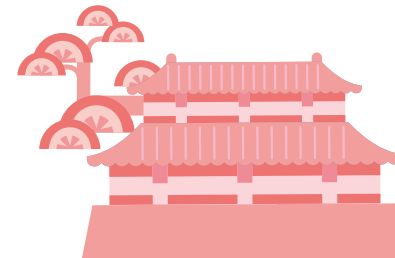
한국사 시간에 학생들이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권피탈과 저항 파트 짜증나'입니다. 한국광복군,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조선혁명당... 등등, 이름이 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으므로 학생들에게 '국권피탈과 저항'의 역사는 짜증 나고 포기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저도 저런 말을 쉽게 하곤 했습니다. 이에 저의 아버지께서는 몹시 화내시며 "강일구 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소리다.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었기에 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셨던 순국선열들의 흔적을 그렇게 모욕하지 마라. 외워야 할 단체가 많은 것은 그만큼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니 이 점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며 공부해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항의 역사를 배울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의 저를 반성하였고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는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태껏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국지사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며 잘못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만날때마다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셨던 저희 증조할아버지인 강일구 애국지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후손의 기록, 장학생 수기

03



장학금을 통한 삶의 변화

- 59 김현빈 포기하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 61 하 나 나라의 비현실적인 지원제도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 장학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63 김○○ 성적, 근로장학금보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이 자랑스롭습니다
- 65 안예슬 장학금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실력이 장비빨인것 같아서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 66 김민지 장학금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내 관심 분야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68 박기득 돈으로 행복을 살수는 없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 70 김경민 갓 20살이 된 제가 세상을 꿈꾸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 72 박○○ 장학금을 나의 발전을 위해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 74 유○○ 독립유공자 후손 세대공감, 줄여서 독후감 프로젝트
- 75 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받고 원하던 기업에 취업했어요
- 76 한수빈 장학금을 통해 실력을 키워 중국 정부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작되는 나눔

- 79 김○○ 결식아동을 돕는 '사랑의 도시락 선물하기'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 81 엄기재 장학금의 일부를 코로나19 기부금으로 사용했어요
- 82 박지윤 장학금은 선조들의 선하고 정의로운 돈이다
- 84 윤희경 나만 보던 삶에서 너를 볼 수 있는 삶이 되다
- 86 이○○ 이 장학금을 통해 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 88 이○○ 삼성의료원 등 병원에 연주봉사를 다녔었습니다
- 89 장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랫동안 내가 그대의 자랑이 되길

장학금을 통한 삶의 변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학업장려금 사업으로
본인의 학업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본 장학금을 통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 박노기 지사의 4대 후손 김현빈

포기하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막막했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항공서비스과에 합격해 당차게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만족스러웠고, 다가올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진행될 실습에 대한 로망을 생각하며 기대하던 나날들이 흘렀고, 어느 날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짧게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는 장기화됐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레 항공업계는 불황으로 인해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금방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채용공고가 언제 돌지도, 꿈꾸던 항공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불안한 심리상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간절하게 지원했던 '2020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에 선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지원할 당시 학비 부담으로 인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최대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교 수업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급받은 1차 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에 함께 보태고, 나머지는 생활비, 토익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0년도 저의 목표는 졸업 전까지 목표하던 토익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토익 문제집,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하루에 2시간 이상 꾸준히 기출 단어를 외우고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서 스스로 참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

유로움이 생기니 많은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제 자존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나태해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생활패턴을 계획적으로 짜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급받은 장학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자 생활 소비 패턴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니 학교 수업 공부도 열심히 해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 뿌듯했습니다.

2차 장학금을 받기 전까지 2021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마지막 학기 재학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취업을 목표로 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두 번째는 희망직무를 변경해 취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꼭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에 따라 장학금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2차 장학금은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자기계발을 할 것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토익스피킹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많은 비중을 둘 것입니다. 또한, 평소 장시간 앉아있고 운동이 부족해 허리통증이 있었는데 꾸준한 운동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며 몸과 마음, 지식까지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제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매 순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며 제 앞길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자랑스러운 진외증조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진외증조할아버지의 떳떳한 증손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하윤선 지사의 5대 후손 하나

나라의 비현실적인 지원제도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 장학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오랫동안 대학진학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외식업 아르바이트부터 사무, 경리, 영화 스태프까지 직업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실로 꽤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채용박람회 견학을 하게 되었고, 이동통신 분야의 최고 기업인 S그룹에 대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던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직자들에게 많은 궁금증과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늦었지만 대학진학을 결심키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대학교 입학은 무척 소중하고, 꿈을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가 안내되었고, 곧바로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일련의 과정과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 걸맞게 저는 사회복지사이신 어머니를 따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기부하였습니다. 짧았지만 매우 의미가 컸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과 기업, 국가는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이윤환원에도 앞장 서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 방학 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자 파이썬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않았던 저의 진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고, 늦었다고 주저하지 않고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학기에 받게 될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전공학습에 필요한 참고서적 구입과 정보 보안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저는 ICT공학에 대한 강한 의지로 졸업 학기까지 전공수업을 중점으로 글로벌 ICT 기술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남들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비현실적인 제도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제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추모·계승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정섭 지사의 5대 후손 김○○

성적, 근로장학금보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이 자랑스롭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성적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 기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보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끔 우리 조상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었다는 이야기와 그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은 들었지만, 나라가 그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적도 쉽게 포기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는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순국'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와 국민(물론 자신을 포함하여)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연구실에서, 병영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받은 장학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바꾸어 올해 3월에 편입학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 계절학기를 수강해야 합니다. 1차 장학금은 여름방학 때 계절학기 등록금과 책값으로 요긴하게 썼고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토익 시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장학금을 받으면 겨울방학 계절학기 등록금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한 가지 배워 보고 싶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거노인을 위해 우양재단 푸드 스마일즈에 매월 작은 금액이나마 1년 정도 후원하며 나눔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금은 학생의 신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사회인이 되면 작은 몫이라도 사회에 돌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안성연 지사의 5대 후손 안예슬

장학금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실력이 장비빨 인것 같아서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실내건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성상 여러 3D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장학금을 받기 전까지는 LG그램이라는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LG그램은 경량 노트북으로 엑셀이나 워드 등 사무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몇 년 전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구매를 했었습니다.

1학년 1년 동안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힘든 것 없이 진행했었으나 올해 2학년에 진급해 3ds Max와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엄청난 발열과 함께 다운도 자주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는 곧바로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ASUS에서 나온 A15라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새로운 노트북으로 지난 학기에 했던 3D 파일을 열어 똑같은 렌더 사양으로 렌더이미지를 뽑아본 결과 30분이 걸렸습니다. LG그램으로는 3시간 30분이 걸렸던 이미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미지 한 장에 3시간이라는 시간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기말과제로 제출했던 수십 장의 이미지들을 계산해보면 참 많은 시간입니다. 심지어 LG그램으로 렌더링을 할 때는 굉장한 렉이 걸려서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었으니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실력은 장비빨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현실 자각의 시간이 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장비빨이라면 좋은 장비를 구비했으니 제 실력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한 후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는 토익 인터넷 강의를 구독하고 토익 시험을 치렀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토익이었고 사실 방학 중이라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꽤 괜찮은 점수가 나와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2차 장학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내년에 취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등의 자기계발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중구 지사의 4대 후손 김민지

장학금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내 관심 분야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연기획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먼저 포토샵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디자인과 영상편집, 포토샵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쯤은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포토샵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걸 응용하여 저의 피아노와 연주회에 필요한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해 어도비 편집 프로그램을 결제했습니다. 일 년에 30만 원 정도라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항상 망설였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그 고민을 싹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편집 연습을 자유롭게 했고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다양한 음악 공연을 관람할 생각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어 어쩔 수 없이 음반을 구매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음반사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도이치 그라모폰의 음반들을 중고 가격에 구매하여 다양한 작품을 여러 연주자들의 음반을 통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비를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매 끼니를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만 원 이상을 밥값으로 써야 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 덕분에 전보다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밥을 제대로 챙겨먹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필요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관심분야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보고 싶었지만 학원은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것들을 금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배워볼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추후에 2차 장학금을 받으면 저는 토익학원에 등록해서 이를 바탕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다양한 공연도 관람하며 제가 하고 싶은 공연기획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서나 서적이 있다면 구매하여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기석 지사의 4대 후손 박기득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방 출신이었던 제가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생활 아닌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생활을 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돈이 듭니다. 가볍게 커피를 한잔 마셔도 돈이 듭니다. 여가생활도 돈이 듭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돈 안 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에 있어도, 밥 먹는 것도 돈이고 물먹는 것도 돈이고 심지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집을 사거나 임대할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진짜 사회로 내뱉어진 직장인이라면, 돈에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학생이고, 지금 내가 나에게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생이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저의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나 자신의 개발에, 미래의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투자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포기했다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일과 공부의 병행은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에서 내가 살아갈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내가 만족할 만큼의 공부에 투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장학금은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 동안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학부생이 연구실에서 논문을 쓸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방학 동안 일을 하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장학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버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개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 김진곤 지사의 4대 후손 김경민

갓 20살이 된 제가 세상을 꿈꾸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게 된 과정

본래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작년에 수능을 친 이후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자 했기에 매주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기가 진행되며 대외활동이나 강의에 쏟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생활비 장학금을 알아보던 중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아버지께서 본 장학금을 신청해보라고 알려주셨고, 본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내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의 의미

300만 원의 장학금은 누군가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갓 20살이 된 제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옷이나 여가에 돈을 쓸 때 저는 돈 한 톨을 쓰는 것이 아까워 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창 수험에 집중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차마 부모님께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필요한 문제집이나 강의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도 돈을 아끼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잡지 못하는 제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직접 돈을 벌면서는

여태껏 해보지 못한 여가 생활을 해보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사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늘 돈을 아끼는 것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통해 받은 돈 150만 원 역시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날의 저처럼 무작정 쓰기가 아까워 모아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적게나마 돈을 벌며 느낀 것은, '돈을 버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땀을 흘려 모은 돈을 쓰다 보니, 의미 없게 써버린 돈은 아깝고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한 돈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훗날 반드시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직 스무 살에 불과한 제가 어떤 일에 300만 원의 거금을 사용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몇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작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개개인의 삶과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글로 기록한, 그런 책을 꿈꿨습니다.

이러한 일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는 재개발로 인한 철거 대상이 된 저희 동네를 사진과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15년 가량을 이곳에서 살며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그것을 사진과 글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실제로 책, 또는 매체로 발간하는 단계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옛 추억을 나누고, 그것을 담은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그곳에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일에 장학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문 지사의 4대 후손 박○○

장학금을 나의 발전을 위해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1차 장학금을 받은 후 저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변화로는 첫째, 코칭 리더십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입니다. 1학기 때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했던 '코칭 리더십'에서 '코칭 리더십, 어디까지 할래요?!' 목표치 선택을 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니 놓치지 말자는 생각에 5R 수료증 발급과 더불어 다문화 코칭 전문가 자격증 2급(MCCP Lv.2)을 저의 목표치로 삼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답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과 당연한 거지만 잊고 살아가는 것인 나와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문화코칭전문가 자격증이 앞으로 선교적인 기반을 두고 더욱 확장되리라 예상하고, 글로벌한 코칭 리더십의 역량을 더해 줄 인력풀이 준비되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자격증 1급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취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수업을 수강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교재들과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교재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걱정이었는데, 장학금 덕분에 큰 부담감 없이 교재와 더불어 원하는 책들까지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자기계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많은 도움 없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2차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첫째로, 2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심리학의 이해'에서 많은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있어,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이나 교재들을 구매하여 수업과 더불어 저만의 공부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 저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현재 모으고 있는 돈에 보태어 더욱 편리하고 휴대성 있는 필기와 공부를 위해 아이패드를 구매할 것입니다.

셋째로, 손재주가 많다는 저의 장점들이 계속되는 학업으로 인해 많이 묻혔다는 생각이 들어 2학기 종강 후 드로잉, 자수, 캘리그라피, 사진, 영상 제작, 편집 디자인, 베이킹 등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의 재능이 조금이나마 발전되고 다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재도 지사의 5대 후손 유○○

독립유공자 후손 세대공감, 줄여서 독후감 프로젝트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직후 과감하게 그 중 하나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곧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교재를 한 권 구매하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모국인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사에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조국의 역사를 차근차근 공부하며 이를 알아가는 기쁨을 음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량 공부한 결과 한국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 후손 세대공감 프로젝트', 줄여서 '독후감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 즉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굿즈 제작, 독립유공자 후손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외국인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하는 '국제한국어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또, 서구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어를 배울 때에 갖는 어려움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영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진정이 되어 외국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에 한발짝 다가갈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윤상만 지사의 4대 후손 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받고 원하던 기업에 취업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받으며 제 삶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제가 원하던 기업에 취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던 데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번 1학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저 역시 4학년인지라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독립 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있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할 시간을 아낄 수 있었기에 시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에 공부를 했고, 장학금은 교재비, 접수비 등에 사용하며 저는 한 학기동안 토익, 오픽, HSK,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제무역사 등의 시험을 치고 목표했던 점수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방학기간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나, 이번 방학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자격증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에만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취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장학금을 받으면 어학 실력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 기업은 높은 외국어 수준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전공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 비교적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따라서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영어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원이나 전화영어의 프리토킹 과정 및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수강하는데 장학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전도근 지사의 5대 후손 한수빈

장학금을 통해 실력을 키워 중국 정부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차 장학금은 주로 여름방학 동안의 학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차 장학금을 받으면서 어느정도 금전적 여유가 생겼기에 알바를 하지 않고, 학원에 등록하여 여름방학 동안 중국어 자격증과 중국어 회화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중국어 공부 덕분에 중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1년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중국에서 수업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장학금을 통해 얻은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바탕으로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2차 장학금은 한국에 있는 동안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주지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도 많은 문제가 되지만, 교통비와 식비 역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장학금을 받아 대외활동 경비로 사용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저는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두 번의 화재와 한 번의 수해를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과 구호물품을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누군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받은 많은 도움을 통해 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꾸준히 봉사하면서, 조금씩 사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학생인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경로당 문해교육 보조, 어르신 자서전 쓰기 등의 봉사를 진행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보조와 외국인 신입생 한국어 튜터링 등 봉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사회에 보답한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보답할 수 있는 것보다 받을 것이 많은 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며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독립유공자 선조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될 것입니다.

시작되는 나눔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수기를 통해 장학생들의 나눔의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 김영현 지사의 5대 후손 김○○

결식아동을 돕는 '사랑의 도시락 선물하기'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많이 줄어서 힘들어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드문드문 오던 손님이 거의 없어진 데다가, 단골 식당들도 함께 매출이 감소하는 바람에 납품할 물건이 수가 줄어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운 좋게 독립유공자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없앨 수 있었고, 부모님의 부담 또한 많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장학금을 받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항상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으니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결심이 생겨 처음으로 기부를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결식아동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후원할 때마다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결식아동에게 1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보고 결식아동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이들이 5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필요한 금액은 3,300원이었기 때문에 큰 금액을 후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후원한 돈으로 아이들이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운 마음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후원을 한 며칠 뒤에는 후원 결과와 함께 아이들의 손편지가 담긴 링크를 문자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더욱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부모님의 가게에 더욱 손님이 줄었는데, 2차 장학금을 받으면 생활비에 보태 부모님께 다시 한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번에는 적은 돈밖에 기부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금액을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듭니다. 제가, 그리고 제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장학금으로 이겨내고 있는 만큼, 저도 제 만족을 위해서만 함부로 돈을 소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보람차고 기쁜 소비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박일구 지사의 4대 후손 엄기재

장학금의 일부를 코로나19 기부금으로 사용했어요

장학금 주 사용처는 학교 및 개인 학업에 관련해서 사용했고,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로 공헌하고자 코로나19 기부금에 활용했습니다. 수치적으로 제 성장을 얘기할 순 없겠지만, 이전 1학기에 아르바이트 같은 일에 집중을 하기 보다는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총 학점 4.4라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자격증 공부를 위한 책과 영어 교재도 구입하여 내년에 있을 자격증 시험 준비, 토익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코로나19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제 선조의 덕이라 생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더 발전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젊은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2차 장학금을 받으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1차 장학금으로 코로나19 기부금을 냈다면 이번에는 직접 마스크를 사서 불우이웃들,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학업에 충실하여 제 자신을 가다듬고 성장시켜 서울시를 나아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전반기에는 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후반기는 직접적으로 나서 봉사 및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서울장학재단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베푸는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 박재엽 지사의 4대 후손 박지윤

장학금은 선조들의 선하고 정의로운 돈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그렇듯이 집안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장학금 대부분은 생활비에 보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100%를 생활비에 보탠 것은 아니고 그저 상당부분을 보탤 뿐이었지만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가게 지출은 늘고 소득이 줄어들었기에 생활비로써 이 장학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이 일시적으로나마 줄어들어서인지 집안 분위기도 이전보다 화목해졌고, 간만에 맛있는 것들도 풍족하게 사 먹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드린 돈을 제외하고는 제가 평상시에 여유가 없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문화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맘 먹고 뮤지컬도 관람하고, 책도 한번에 10권 정도 사서 읽어보고, 여러 전시도 보러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전공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전시를 관람하면서 전시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시마다 어떻게 다르게 구성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이 학문에서 주된 이슈가 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만 원 정도는 적은 돈이나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픈 아이들에게 기부하였고요. 처음에 분할지급 된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을 때부터 내가 쓰고 남은 돈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보자고 생각하였기에 남은 돈을 기부 하는데에 큰 고민 없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조들의 선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행위로 받은 돈 이기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2차 장학금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상당 부분은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릴 예정이지만, 저를 위한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요.

1차 때 문화생활을 즐겼다면, 2차 때는 제가 관심 있는 상품들을 구매해서 인기요인, 판매요인 등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상품 제작과 판매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자본적 한계로 실물이 아니라 화면 너머로 분석을 해왔는데, 이 장학금을 통해서 성행하는 트렌드 등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 윤길 지사의 5대 후손 윤희경

나만 보던 삶에서 너를 볼 수 있는 삶이 되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주신 장학금에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술대학 디자인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술은 다른 학과보다 재료비와 프로그램 등 꽤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포토샵, 일러스트 등 프로그램을 활용할 고 사양의 컴퓨터가 없다는 점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이전까지 가족이 쓰던 옛 컴퓨터를 빌려서 사용하였기에 과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는 시간과 체력을 앓아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후에는 작업을 위한 장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높은 사양의 노트북도 장만하고 남은 돈으로는 매 수업 필요해지는 재료를 샀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야만 했던 저는 기숙사비 걱정을 했지만, 그것 또한 장학금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몸이 피곤함에도 계속 다녀야만 했던 아르바이트도 관두고 오로지 학업에 집중하고 남은 시간에는 개인 작업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관두고는 오히려 제 재능을 살려 과외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항상 마땅히 조언을 구할 선배도 선생님을 구할 여력이 있지도 않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과외를 해보자 마음먹었고 현재 몇몇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 앞길이 막막해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여유가 생긴

지금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과외 외에도 코로나로 막막해진 고3 친구들의 자기 소개서를 무료로 봐주는 등 일종의 기부 행위를 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좋았습니다.

항상 돈 돈 하면서 눈을 가리며 살았던 저는 이번 기회에 다양한 분야에 눈을 돌리고, 저와 같이 힘이 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재단에서 주신 장학금은 자본이 아닌 심적인 여유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분기의 장학금도 더 좋은 일의 바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도근 지사의 4대 후손 이○○

이 장학금을 통해 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항상 알바를 해왔습니다.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라 보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은 썩썩했습니다. 대학교 교직 수업에서는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제가 고액과외를 진행하거나 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교육적 평등을 방해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알바들에 비해 들이는 시간이 현저히 적은 과외나 학원 알바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 4일 이상 하던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악기도 배우고, 다른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저의 전공분야에서 교육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6개월 간 함께 고민하며 결국 책을 출판해서 내는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알바를 했던 모든 시간을 다 여기에 쏟아야지 생각했던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대외활동을 경력으로 삼아서 또 다른 대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차 장학금을 받으면 무엇을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의미 있는 돈인 만큼 값지게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1학기와 같이 생활비에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도비 정기구독을 시작할 것입니다. 포토샵과 영상 편집에 대해 공부해서 제 역량을 늘리고 어디서든 활용 가능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영상 편집 등 기술적인 한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해 볼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마땅히 기술이 없어서 놓친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장학금을 통해서 제 기술적인 능력을 길러서 많은 공모전에 참가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공교육을 죽이는 사교육에 일조해왔던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교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차주환 지사의 4대 후손 이○○

삼성의료원 등 병원에 연주봉사를 다녔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동아 콩쿨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활털, 스트링 교체비, 악기 대여비, 홀 대여비, 반주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평소에 전공 공부하는데 있어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연습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독립유공자 장학금의 지원으로 이번 콩쿨 준비에 좀 더 매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알바 자리가 많이 줄어서 걱정이 앞섰는데 덕분에 이 고비 한번 더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장학금을 지금 받는 대로 콩쿨 준비에 또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콩쿨이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쿨에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악기 대여료와 반주비, 그리고 콩쿨복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콩쿨 입상이 발판이 되어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사회에 환원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삼성의료원 등 병원에 연주 봉사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다닐 수 없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업을 어느 정도 마치면 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악기사와 연결해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 이용준 지사의 4대 후손 장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랫동안 내가 그대의 자랑이 되길

장학금을 받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답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도 당신의 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가 성장하는 동안 항상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이제야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의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당신의 목태가 묻은 셔츠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색이 빠진 모자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가서 좋아 보이는 여름 셔츠 두 장과 마치 신사가 쓸 것 같은 베레모, 그리고 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챙 모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신이 매일 쓰고 있는 모자가 항상 열은 색이어서 '때깔이 좋아 보이는' 모자를 좋아하는 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자가 열은 색이었던 이유는 오래된 모자이어서 색이 빠진 것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화려한 모자를 좋아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때깔이 좋은' 모자를 이제야 선물해 드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제가 선물해드린 옷과 모자를 챙겨 입으시고 친구분들께 저의 자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장학금을 받아 이렇게 나를 찾아 왔다고 항상 겸손 하신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의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그대의 자랑이 되길.

저는 이 장학금이 있었기에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감사한 가족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가족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제가 만족하는 성

적을 받을 수 있었고 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 준비물 등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차 장학금은 저의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토익 공부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토익 인터넷 강의 수강료와 그 밖의 교재비용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과 특성상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 진행에 있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제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